

경제

‘무노동 무임금’ 원칙고수 주효

■ 금호타이어 분규 극적 타결 배경

파업때마다 임금 손실부분 보전 관행 쫓기
‘상처뿐인 파업’ 넘더니 ... 노사 ‘실리’ 주력

금호타이어 노사 분규의 극적 타결은 외견상
으로 ‘평화적 해결’ 모습을 띠고 있다. 쌍용차와
달리, 정부나 노동계의 개입이나 물리적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자율 협상을 통해 ‘실리’를 쟁겼
다는 점에서 ‘노-사 모두의 승리’로 평가할 만하
다.

◆돌보이는 원칙 지키기=무엇보다도 ‘무노
동 무임금’ 원칙을 갖고 대응한 회사측이 결국
노조의 파업 종료와 업무 복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획기적 성과라 할 수 있다.

사측은 이전 파업에서도 ‘무노동 무임금’ 적
용을 천명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타결 격려금’,
‘경영성과급’, ‘위로금’, ‘생계비 부족분’ 등 명목
으로 임금 손실부분을 보전해줘 왔다.

일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임금을 주지 않는 상
식 중의 상식인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이 회사
에서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었다. 처음엔
‘원칙’을 외치고 ‘강수’로 일관하다가도, 막상 파
업이 끝날 때면 적당한 타협, 갖은 구실을 붙여
못 준 임금을 보전해주던 것이 금호타이어의 노
사 관행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회사측은 전면파업 및
공장 점거로 이어지는 노조의 압박에도 물러서
지 않았다. 끝까지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때만
쓰면 된다’는 노조의 관행에 쫓기를 막는 유례

없는 이징표를 세우게 됐다.
◇타결 배경=막판 협상을 앞둔 지난 5일 새
벽 사측은 직장폐쇄, 노측은 공장 점거로 맞서면
서 극한 대결로 치달았던 탓에 이날 협상이 타결
될 것이라는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핵심 쟁점사항인 무노동 무임금은 노사 모두
에게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었다. 회사는
원칙을 지켜버렸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노조도 이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지급 보류
등 한 발 물러선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무노동
무임금마저 받아들일 경우 파업에 참여해온 노
조원들이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데다 파업
명분마저 잃게되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협상이 오후 9시
10분까지 12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무산될 것
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될 경우 돌아오는 것은 정
리해고 및 공장 문을 닫는 파국뿐이라는 절박한
인식이 결국 양측 모두의 양보를 이끌어 냈다.
회사측 입장이 요지부동인데다, 경제 위기 상황
에서 ‘지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다’는 비판
여론도 한몫하면서 노조도 물러나지 않을 수 없
었다.

대신 노조는 회사 제시안을 대부분 받아들여
면서 정리해고를 막고 정기 승호를 적용키로 한



다시 바빠진 작업장

노사협상 타결로 6일부터 조업이 재개된 광주시 광산구 소촌동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으로써 실리를 챙기게 됐다.

◇상처뿐인 파업=협상이 타결됐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파업으로 회사는 1천150억원이 넘는 매출 손
실을 입었고 노동자는 임금 손실을 입는 등 모
두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됐다. 특히 파업으로
실추된 기업 이미지와 신뢰,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는데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급선무로 떠올랐다.

여기에 파업 기간 동안 끊어진 노사간 불신과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전
망이다.

또 사실상 ‘백기’투항한 현 집행부에 대한 반
발 등 노-노간 반목과 갈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
다.

김중호 대표이사는 협상 잠정 타결 이후 본보
와의 통화에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
이라며 “직원들의 열정과 기술력으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가계부채 상환능력 최악

처분소득 502조, 0.2% ↑

가계부채 697조, 5.7% ↑

한국경제의 가계부채 상환능력이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
났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명목 국
민총채분가능소득은 지난 상반기에
502조79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의
501조2천95억원보다 0.2% 늘어나는
데 머물렀다.

국민총채분가능소득은 국민총소득
(GNI)에서 해외로 무상 송금한 금액
을 제외하고 무상으로 받은 금액을 더
해 실제로 국민들이 사용할 있는 소득
을 말한다. 국민총채분가능소득 증가율
이 상반기 기준으로 이렇게 낮은 것은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
음이다. 그동안 명목 국민총채분가능
소득 증가율이 상반기 기준으로 가장 낮

았던 것은 1998년의 2.6%였다. 연도
별로는 상반기 기준으로 2002년 10.
2%, 2003년 6.0%, 2004년 8.6%,
2005년 3.8%, 2006년 5.0%, 2007년
6.8%, 2008년 8.5% 등이었다.

반면, 가계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가계신용은
697조7천493억원으로 작년 같은 시
기의 660조3천60억원보다 5.7% 늘
어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반기 국민총채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의 비율은 1.39배로 작년 같
은 시기의 1.32배보다 0.07포인트 올
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01년까지 1배 이하에
머물다 2004년 1.15배, 2005년 1.20
배, 2006년 1.26배, 2007년 1.29배,
2008년 1.32배 등으로 계속 상승했
다. 올해 상반기에는 1.4배에 육박했
다.

/연합뉴스

중소 추석 특별운전자금 300억 지원

韓銀, 내달 1일까지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6일 추
석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에 300억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을 관내 금융
기관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취

금액의 50%(업체당 최대 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1.25%의 저리로
지원한다.

기간은 7일부터 10월1일까지이며
사치향락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 부
동산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이
대상이다.

/장철수기자 bungy@kwangju.co.kr

취발유값 소폭 내릴듯

SK 등 4사 공급가 하락

이번 주에는 주유소의 취발유 가격
이 소폭 내릴 전망이다.

6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SK에
너지, GS칼텍스 등 정유사 4사의 8월 넷
째 주 공급가격은 7월 셋째 주 이후 6
주 만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국내 정유
사들의 취발유 공급가격은 국제 가격

이 7월 초 배럴당 60달러대에서 8월
중순 80달러대까지 치솟으면서 8월 셋
째 주에 8 당 717.62원까지 올랐다.

그러나 최근 국제 가격이 소폭 떨어
어져 배럴당 70달러 안팎에 머물면서
정유사 공급가격도 8월 넷째 주에
704.06원으로 전주보다 13.56원 내렸
다. 정유사 공급가격이 인하되면 주
유소 판매가격도 내려가게 된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Table with columns: 로또복권 (제353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and 판권복권 (제176회) with columns: 등위, 당첨금액, 당첨번호.

18일간 파업 ... 1인 평균 301만원 줄어

■ ‘무노동 무임금’ 급여 얼마나 깎이나

금호타이어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파업으로 일하지 않은 직
원들의 급여는 얼마나 깎일까.

6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조원들은
총 18일간의 파업으로 평균 300만원 이
상의 급여가 감소하게 됐다. 무노동 무임
금 원칙에 노사가 합의하면서 임금 보전
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측은 “직일별로 근무연수, 정기
승호 등이 다르고 공장별 근무 일정이
달라 정확히 산출하기는 힘들지만 이
번 파업으로 11월까지 1인당 평균 301
만5천원을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예
상했다.

회사측이 밝힌 지난해 생산직 직원 1

인당 평균 임금이 7천135만원의 점
감안하면 파업으로 인해 4.2%의 임금
이 줄게 됐다. 하지만 실제 파업과 관련
된 급여 월이 7월부터 11월의 만큼 5개
월동안 임금 감소액은 10.2%에 달한
다.

광주공장의 경우 지난 7월 이어진 노
조의 부분·전면 파업 등으로 1인당 평
균 49만9천784원의 급여를 못 받았다.
곡성공장은 1인당 평균 44만8천383원,
평택은 40만9천461원의 임금 감소가
이뤄졌다.

8월 월급봉투는 더 얇아졌다. 광주공
장 노조원들은 1인당 평균 94만2천713
원, 곡성 85만5천876원, 평택 66만8천

628원 등 8월 평균 89만7천121원의 임
금이 깎였다.

결과, 노조원들은 광주공장의 경우
7~8월 평균 144만2천497원, 곡성 130
만4천259원, 평택 107만8천88원 등의
임금을 평담보다 적게 받게 된 것. 여기
에다 9월과 10월 추석, 11월 상여금도
월천 적어진다.

총 18일간의 파업에 따라 근무한 시
간과 날짜가 적다보니 상여금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고 회사가 그만큼 이득을 본
것도 아니다. 회사는 이번 파업으로 1
천150억원이 넘는 매출 손실을 입었다.
명분없는 파업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에 엄청난 상처를 안겨준 셈이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금호타이어 파업 일지

- ▲ 5.11 = 노사 상견례 2009년 임금협상 시작, 임금 7.48% 인상 등 노조요구안 제시
▲ 6.10 = 노조 정의행위 찬반투표 81.33%로 가결
▲ 7.1 = 노조 삼일절행의 전면파업
▲ 7.15 = 생산량 50% 태업
▲ 7.17 = 사측 경영사유에 의한 정리해고 합의요청 통보서 노조에 발송
▲ 7.20 = 노조 확대근부 파업
▲ 7.24~26 = 시한부 전면파업
▲ 8.10~14 = 1차 명예퇴직 공고부착
▲ 8.14 = 4시간 부분파업(생산량 40%)
▲ 8.17 = 노동청에 정리해고 신고서 접수
▲ 8.23 = 정리해고 저지 1차 경고파업, 정리해고 명단 노조 통보
▲ 8.25~26 = 직전폐쇄
▲ 8.27~31 = 2차 명예퇴직 신청 접수
▲ 8.29 = 정의대행위원 21명 검찰 고소
▲ 9.4 = 정리해고 예정자 690명 개별통보, 노조 전면파업 돌입
▲ 9.5 = 06시 직전폐쇄
▲ 9.5 = 24차 교섭 타결

부동산 경제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자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변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자산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assetkorea.com = 전국 2만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변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최고수익률 / 세무계산서발급(양도세감면) / 신속한명도 / 정확한권리분석 / 최상의대출
에셋코리아에서는 꼼꼼하게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을 추천합니다.

미래의 가치를 창조하는
수완 코리아랜드 공인중개사 사무소
062)951-6800
H.P. 010-3666-8949
수완 지구
수완 롯데마트 옆
팰리스타워빌딩
중앙메디컬빌딩 (분양임대)
뉴타운 빌딩
상가분양사무소 직원모집
• 남 0명, 여 0명(기본급+성과급)
• 나이 25~35세

대인동삼일부동산
010-223-1140, 0210-011-602-2532
(광주은행 산본점 옆, 대인동 소방서 건너편)
모델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남으
로 모델·목욕탕 및 각종 상
가건물 사실분과 연·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
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
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
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
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
니다.